

“도민에게 내걸었던 공약 지키기 최선”

더민주 지도부, 전북 방문

“도민 성원 부합 못해” 사과
“수권정당이 정권교체의 길”

김종인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13총선 이후 처음으로 전북을 찾아 “전북발전과 정권교체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들은 2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과, 총선후보자 및 자치단체장 오찬간담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잇따라 방문했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0대 총선에서 제1당의 위치에 올라섰지만 전북에서는 두 석을 얻는 데 그쳤다”며 “전북도민의 성원에 우리가 부합하지 못했다”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김 대표는 “그 동안 전북의 지지에 오랫동안 안주해 왔다. 도민들의 사랑을 되찾으려면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며 “수권정당·대안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유일한 길이자 정권교체의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시작으로 “총선기간 동안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공약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차질없는 전복이전을 통해 금융타운 조성에 온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전북 최대현안 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며 “총선 출마자들이 공약한 것은 중앙당



김승수 전주시장은 2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방문한 김종인 대표와 진영·양승조·이춘석 비대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대한민국 탄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소외되지 않는 전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4.13총선에서 전북지역 참패 원인, 해당행위자 대책문제, 전당대회 개최시기, 호남특위 등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김 대표를 비롯한 일행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총선후보자 및 자치단체장 오찬간담회를 갖고 “내년 대선이 지나면 곧바로

지방선거가 이어진다. 그 때 가서 또 이번과 같은 패배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을 거름삼아 분석과 보완이 필요하다”며 “당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협력해 내년엔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이어 전북도당 총선공약인 메가탄소밸리 조성과 관련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방문했다. 강진재 원장으로부터 탄

소산업 현황을 듣고 탄소법 제정 지원과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지원 확대 등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전북방문에는 김종인 대표를 비롯해 진영·양승조·이춘석 비대위원, 정장선 총무본부장, 이언주 조직본부장, 박용진 비서실장, 최윤열 비례대표 당선자(서강대학교 경영학 명예교수)가 함께했다. /신광영 기자

오늘 ‘국민의당 단독집권 가능성’ 토론회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당, 단독집권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용식 국민의당 경제제약추진위원회 부위원장과 최광웅 데이터정치연구소장이 제20대 총선 평가와 제19대 대선 예측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김두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김운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이에 대한 토론을 한다.

최용식 부위원장은 발제문을 통해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오만, 먹고사는 문제가 선거쟁점으로 부상한 것 등을 국민의당 선전의 이유로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제19대 대선 승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경제성장을 앞세운 정치노선과 구체적인 정책 제시, 국민이 바라는 것을 설명한다.

최광웅 소장은 제3당 성공을 예측한다. 유성엽 의원은 “국민의당이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현재 결과는 전체의석의 12.7%, 38석이지만 유권자의 의사가 비교적 잘 반영된다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시뮬레이션을 하면 결과는 380석 중 25%인 95석(새누리 121석, 더민주 130석)을 차지하는 것이 된다”면서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기대와 희망을 온전히 실천해 나가는 것, 38석(12.7%)의 역할이 아닌 95석(25%)의 역할을 해내는 것이 국민의당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지금의 사랑이 절반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수권대안정당의 길을 시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정음=김대환 기자

“육정호 상수원 난개발 방지책 마련해야”

전북도의회 장학수 의원(정음)은 “육정호 상수원 난개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2일 전북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육정호 수상레포츠 단지가 생기면 육정호를 상수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정읍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장 의원은 육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이 지난해 해제된 이후, 임실군이 정읍시와 아무런 상의와 협의도 없이 육정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전북도가 육정호 상생협력 선언서에 명시된 정읍시와 협의된 사항을 확인도 하지 않고 상수원에 보트를 띄우는 사업에 승인을 해줬고, 국비 지원요구에 승인을 하는 오류를 반복해 행정업무 관리 능력에 한계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현재 ‘육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를 대표 발의한 상태이며 해당 사업은 국비 32억 6천 6백 4,000만원, 군비 25억 6,000만원 등 총 6억 6천 6백 4,000만원이 확보돼 추진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도의회 해체 예산 심사에서 삭감돼 무산된바 있다. /신광영 기자

안철수, 정부발 산업개혁 “줄속행정 우려”

“정부 경제실정 인정이 우선” 주장... 미래일자리위 설치 제안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2일 상반기(1~6월) 동안 신산업 지원을 위한 선택과 집중에 나선다는 정부의 산업개혁 방침과 관련, “상반기라도 두 달 밖에 안 남은 시간 동안 누가 어떻게 움직일지 걱정되는 것이지 줄속행정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방침에서) 우려되는 것은 올해 상반기 신산업의 움직임을 가려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늦었지만 정부가 미래먹거리 산업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의미 있다”면서도 “몇 가지 쟁점과 넘어야 할 점이 있다. 이미 밝혔듯 신성장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근본적인 산업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실정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책을 세우다보니 이미 한계에 이른 산업의 구조개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만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의 경제실정 인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아울러 “정부는 세제 지원, 창업자금 지원 등 과거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매칭해 신산업 육성펀드를 조성해 산업투자자본이 운영한다는 것이 바로 과거의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발상의 전환’ 방법론으로 국민의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미래일자리위원회 설치를 다시금 제안했다. 그는 또 ‘일자리·교육 미스매치’ 해결을 위해 자신이 2012년 대선 당시 제시했던 대통령 직속 교육위원회 설치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구조개혁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미래먹거리, 미래일자리들을 만드는 데 여야를 넘어 정치권이 집중할 때”라며 “정부도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짜 미래먹거리, 미래일자리 찾기 위해 열린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당은 최고위원회의에 고(故) 신해철씨의 아내 윤원희씨를 초청,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신해철법은 국민의당이 19대 국회 협상 태

이블에 제시한 5대 중점법안 중 하나다.

안 대표는 신해철법의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과 관련,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거듭 요구했지만 19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렵다. 부끄러운 일”이라며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법인데 새누리당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원희씨는 “신해철법이 특정인을 위한 법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법안이 잘 통과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와 함께 ‘입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 기념곡 지정과 호남권 면세점 허가를 촉구하는 등 호남 민심을 의식한 발언도 이어갔다.

장병환 의원은 “5·18 36주년이 다가오기 전에 입을 위한 행진곡을 다시 공식 지정곡으로 하거나 최소한 (기념식에서) 제창을 하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주선 의원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지역엔 면세점 한 곳이 없다”며 “지역 발전과 지역관광 활성화, 한국 관광 위상 강화 측면에서 면세점을 하루 속히 추가 허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주 기자

새누리 원내대표 후보자 3인 지지 호소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 뛰어든 나경원, 유기준, 정진석 후보자는 2일 하루 종일 20대 총선 당선인들을 만나며 표심을 호소했다.

후보자 3인은 원내대표 경선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부터 지금까지 국회 의원회관 등을 다니며 자신이 책임자임을 내세웠다.

나 후보는 이날 의원회관에서 당선인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새누리당 혁신모임이 진행될 환영철 간사함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미리 약속은 하지 않고 다른 의원들을 만나러 그냥 다니고 있다”며 “회관에 의원들이 많이 없어 외부 행사 등 외부에 있는 의원들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 키워드는 변화”라며 “변화에 대한 의원들의 고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도 의원회관 곳곳을 누비며 표심을 자극했다. 정 후보 측은 “아침부터 회관에서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 외부에 있는 의원들과는 통화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후보도 이날 유권자인 당선자들을 찾아다니며 표심을 자

극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일제히 라디오 인터뷰를 갖고 자신이 신임 원내대표 책임자임을 내세우기도 했다.

나 후보는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들은 새누리당에게 변화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렸다. 이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에 앞장서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정말 야당하는 심정으로 당의 체제를 바꿔 새로운 각오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청 관계와 관련, “그간 일방통행이 아니었으나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쌍방향 소통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며 “당이 할 일은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이라고 수평적 당청관계를 약속했다.

유 후보는 “총선 민심을 가슴에 새기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필요한데 이러한 상황을 친박 책임론만 갖고 극복할 수 없지 않느냐”며 “친박 2선후퇴론”에 반발했다. /이성주 기자

천정배 “테러방지법 개정 노력”

심상정 “테러방지법 폐지해야”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는 오는 6일로 입법 예고된 테러방지법 시행령과 관련, “새로운 입법적 계기를 시도해 보는데 노력하겠다”고 2일 말했다.

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테러방지법 관련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20대 국회는 국회 지형이 전혀 달라졌다. 테러방지법의 비판적 입장을 가진 야당이 다수를 차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입법에 고된 시행령은 테러방지를 구실로 해서 국정원이 국민들의 생활과 비밀들에 대한 무작정 침해 가능성이 높고 감시나 통보가 취약해져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앞서 진행된 시민단체 간담회 자리에서 “시행령에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개인정보 수집권한이 규정돼 있는데, 이에 대한 통제 및 제한 규정이 전혀 없다”면서 “시행령 개정을 넘어서 테러방지법 자체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박준영 검찰 소환에 ‘원칙대로’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2일 박준영 당선인이 공천 대가로 수역원대의 급전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에 출두한 상황과 관련, “당원 당규대로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당선인의 검찰 소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성주 기자

제3회 전국 품바 명인전 성공 개최 기원

ALLforLAND

All of Land for Human and Nature

올포랜드

“정직한 경영과 기업운영”
올포랜드는 공간정보기술의 최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http://www.all4land.com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에이스하이엔드타워 3차 1503호 Tel.02-855-5724 Fax.02-857-5746